

未來指向教育의 전당, 西原大學

車 溶 柱

(西原大學長)

1. 設立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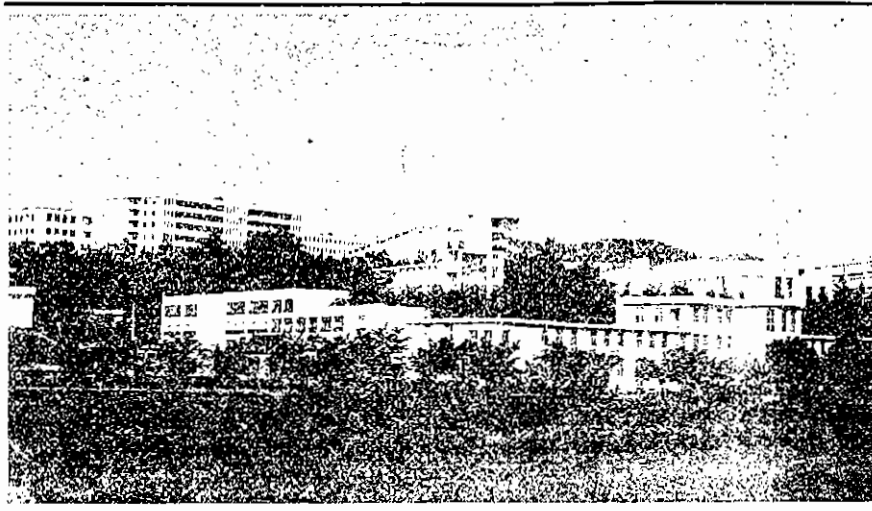
본 대학은 교육이 구국의 길이라고 믿고 운호 학원을 설립한 故 雲湖 강기용 박사와 임관익 여사의 집념으로 1968년 청주여자초급대학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했다. 20성상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암담한 시절도 있었으나 절망보다는 희망을, 좌절보다는 용기를, 퇴영보다는 개척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서원인들은 그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체험은 앞으로 대학의 발전은 물론 교육 입국에로의 초석이 되리라고 믿는다.

설립자 고 강기용박사는 1917년 8월 평안남도 용강군 서화면 용상리에서 구한말 당시 우편·체신 계통의 관리로 생활하다가 한일 합방을 반대하여 그 관리직에서 쫓겨나 낙향한 강병렬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먼저 설립자 강기용박사의 인품을 살펴 보면, 소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육영 사업을 창업할 때까지 좁은 선을 그리며 특정지워지는 것은 첫째로 솔직 담백하고 소박하며 평민적이고 다정다감한 그러면서도 성실 근면하며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성품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정 하늘을 나는 솔개를 보면서 일제에 압박을 받는 등포를 연상했던 일이나, 진남포공립상공

학교를 고학한 근면 성실의 일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즐기찬 독립심과 참신한 창조 정신, 그리고 진취·개척 정신으로 일관한 분이라는 것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독립 정신과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꾸준히 창조하는 자세와 즐기찬 도전과 개척 정신은 중학 시절의 고학에서부터 학원 창립 육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역정에서 무수하게 찾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설립자는 희망과 의욕, 폐기와 자신을 가지고 항상 무엇인가 새롭고 참신한 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건설적이고 전진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집중한 그런 분이였다.

이러한 설립자의 교육 이념이 결실을 맺어 청주여자초급대학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청주여자초급대학은 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다섯 달 반만인 1967년 12월 11일 인가되었다. 설치 학과와 학과당 입학 정원은 국어국문학과 30명, 가정학과 30명, 응용미술학과 30명, 수학과 30명 등 모두 1백 20명이였다. 그러나 신입생 선발을 한 결과 수학과는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어 자동 폐과되고 국어국문학과·가정학과·응용미술학과 등 3개 학과에 90명만을 선발하여 1968년 3월 9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설립자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곧 이어 4년제 학부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1969년 12월 청주여자초급대



◀ 지난 20년간 중등 교원 전문 양성 기관으로 많은 교육 인재를 배출해 온 청주사범대학이 교명을 西原大學으로 바꾸고 보다 폭넓은 학문 영역의 영재 교육 전담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학을 폐교함과 동시에 4년제 청주여자대학을 설립 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신청을 접수한 문교부는 바로 그 해 신청을 받은 지 13일만에 설립을 인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설치학과 및 학과당 입학 정원은 가정학과·음악과·미술과 등 3개 학과에 각 20명씩 60명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봉건적인 잔재가 농후하여 보수적인 여성 교육관이 지배적이었던 중부 지역 사회에서 최초로 설립된 여자대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수 이남 중부 지방에서도 최초의·유일한 여자대학으로 탄생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 지역 사회 여성교육의 근대화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른바 교육 도시인 청주에 학문의 도장이며 토론의 장으로서 전향적인 사상을 교환하는 또 하나의 대학이 설립되어 교육 도시로서의 청주의 면모를 돋보이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70년 이후 경제 개발 계획에 의하여 특수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직자의 이직 현상이 일어났고, 중·고등학교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교직자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설립자는 대학 본과에 교직 과정을 설치할 필요성을 인식, 1971년 문교부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냈으며, 보다 전문적

인 그리고 참된 교육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1972년 교명과 학칙 변경 인가를 받아 청주여자사범대학으로, '78년 10월에는 청주사범대학으로 교명 변경 및 증과 증원을 하여 '80년대 중반에는 전국 최대의 사립 사범대학으로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기게 된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현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성실하고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하고자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시도, 1987년 10월 서원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2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12개 학과를 신설, 올해 3월 본 대학의 성년됨과 때를 같이 하여 국어교육과 등 사범계 15개 학과, 국문학과 등 일반계 12개 학과 등 총 27개 학과에 1천 90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이면서 종합대학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본 대학은 교육 입국, 그리고 통일 조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술선의 용기'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하여 발휘해 왔으며, 또한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의 뜨거운 지성' 속에 공존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2. 創學 理念

설립자는 오로지 구국의 길은 교육으로부터라는 신념 아래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교

육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다.

본 대학 교훈의 근본 이념은 정의·자유·진리이며, 이 세 가지의 근본 이념 아래 ① 애국 애족의 인간 육성, ② 자주 자립의 인간 육성, ③ 성실 근면의 인간 육성을 실천적 교육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홍익 인간 세계의 구현과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교육 이상을 지향하기 위하여 그 하위 교육 이념인 교육 입국 내지 구국 교육을 목표로 세우고 ① 정의에 바탕을 둔 애국 애족, ② 자유에 투철한 자주 자립, ③ 진리에 명석한 성실 근면의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이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첫째로 정의에 입각한 애국 애족의 인간 육성은 부정불의, 불합리, 부조리를 배척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나, 이웃, 사회, 민족, 국가를 사랑하는 인간을 육성하자는 데 있다. 이는 무질서와 혼란, 부정부패 등을 뜨거운 정열과 선명하고 투철한 신념으로 극복하여 번영된 조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욕과 대담에 넘치는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헌신적 인간을 배출해 내는 데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합리 정신을 터득한 국민과 애족의 인간을 하루빨리 국가·사회에 배출하여 인류 공영의 문화 세계에 이바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자주 자립의 인간 육성은 자유에 투철한 민주 시민임과 동시에 독립 정신이 강한 국민으로서의 인간을 양성하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유와 창의, 민주 교육, 독립 자주 정신과 이념이 근간으로 되어 있다. 자주 자립 정신에서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창조하는 슬기와 폐기찬 의욕, 그리고 진취·개척 정신, 자유 민주 정신이 투철한 인간을 배양하자는 데 있다. 의타 의존 무기력과 소극성, 체념과 폐배 의식 등을 적극 배격하고 강인한 자주 자립 정신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진리 탐구를 지향한 성실 근면의 인간 육성은 학문의 진리 탐구는 물론 진실한 인생의 추구를 위하여 성실하고 근면한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이다. 근면 성실은 불굴의 의지력 그리고 무기력과 나태가 아닌 의욕과 폐기에 찬

개척력으로 구체화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진리를 추구함은 의욕에 찬 창의로 진실을 찾음이고, 거짓과 비능률·비생산성을 버리고 참됨과 전향적이고 건설적이며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3. 機構

서원대학은 청주시 모충동 231 번지 청주가 자랑하는 無心川을 끼고 있는 九龍峯에 자리잡고 있어 언제나 신선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4천여 서원인들이 면학에 힘쓰고 있다.

현재 본 대학은 인문·자연·예·체능 계열 등 3개 계열에 27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인문 계열에는 어문학 실력을 기르고 폭 넓은 지식의 습득과 심오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15개 학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과학 입국에 일조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연 계열은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의 이론을 교수·연구하여 개인의 창의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연구 세미나를 통하여 현대적인 과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미적 욕구 실현 및 미적 세계 창조를 위한 예술인 양성에 목표를 둔 예·체능 계열은 미술·무용·음악 예술의 이론 연구 및 창작과 표현 능력의 함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체육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각 계열의 사범계 학과는 중등 교사로 진출하기 위해 국가의 교육 이념과 그 목표를 이해하고 교육자로서 확고한 이념과 진실한 사상을 갖추게 하여 유능한 중등 교원을 양성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의 부설연구소로는 교육연구소, 호서문화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전산연구소 등이 있다. 교육연구소는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여 대학 발전과 한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호서문화연구소는 호서 지역의 역사, 민속, 언어, 지리 등 제반 분야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향토 문화 및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부속 기관으로는 도서관과 신문사, 방송국, 기숙사 등이 설치되어 학생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참신한 대학 문화의 창달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대학 본부에는 교무처·학생처 등 2개의 처가 있고 기획실과 취업보도실, 사무국 등을 갖추고 있다.

4. 教育 環境

우리가 흔히 대학을 상아탑의 전당이라고 해 온 것처럼 대학은 학문 연구의 중심이요, 인문 문화 발전에도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강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조하는 시설이나 환경 등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은 학문 연구의 산실이 되고 있는데, 본 대학의 도서관은 1968년 3월 9일 정주여자초급대학 도서관으로 개관했다. 현재 4백 16평의 넓이에 7백여 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10만여 권의 각종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문 탐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하 학교의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의 본관 건물을 개조하여 타 도서관에 비해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 수에 비하여 비좁았던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천여 평의 강의동 건물을 착공하여 내년 3월초 완공될 예정인데 7월 현재 전체 공정의 60% 정도의 진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건물이 완공되면 강의실 30실, 실험·실습실 12실이 확보되어 강의실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는다.

한편 타대학에 비하여 타지방에 연고를 둔 학생들이 많은 본 대학에서는 기숙사의 건립이 절실하였다. 이에 지난 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1백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1동을 착공하여 금년 9월에는 제1동 건물에 남학생이 우선하여 입주할 예정이며, 또 제2동 건물이 완공되는 12월 이후에는 1백 40여 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원거리 통학의 불

편과 주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면학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본 대학은 우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박물관과 기타 건물을 계속적으로 건립하여 후세들에게 본 대학의 창학 정신과 교육 이념을 길이 빛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 教育 內容

그동안 실시되어 온 교육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에 교양 강좌가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산업과학·첨단과학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현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양 강좌와 취업이나 진학에 관련한 특강 등을 개설하여 효율적인 교과 운영에 힘쓸 것이다. 또한 부족한 교원의 확보와 학업 증진의 2중 효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문의 심층적인 연구에 있는 것이므로 부설연구소를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다원화·전문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 사회의 현실적 요청에 발 맞춘 것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머지않아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6. 맺는 말

서원대학은 설립자인 강기용 박사의 교육 이념과 창학 정신의 바탕 위에 몇 가지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첫째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갖춘 대학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학풍 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학의 본산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장차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할 서원인들은 학술 연마와 인격 도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전환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설립자의 뜻이기도 하고 서원인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단과대학이 종합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과 증설, 시설 투자, 건물 확충, 교원 확보 등 우리 스스로가 풀어 나아가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가장 빠른 기간에 종합대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학은 진리를 지향하는 연구 생활과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연구는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며, 교

육은 창조된 것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창조란 고뇌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고통의 과정을 겪은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결과이다. 이러한 창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전공 분야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의미한다.

본 대학은 이제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이에 따른 현실적 요청을 등한시 하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 [감신]하면서도 친근한 아카데미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 나아갈 것이다. *